

##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 규 석

전남대 심리학과

80년대들어 연구가 활발해진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문화비교연구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동안 이루어진 경험적인 연구들을 [나]의 파악, 내외집단차별, 집단의 영향력으로 구분하여 그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연구들이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그 이론의 개념적인 틀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을 검증하는 보다 세련된 연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론의 한계 및 문화의 다른 차원과의 관련을 밝히는 연구들이 바람직한 연구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은 폭넓은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심리학적 이론의 개발과 성립에 문화가 미친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의 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은 비교문화심리학, 비교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에서 상이한 문화권의 성원들이 보이는 행위를 비교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써 제시되어 왔다(Berger, Berger, & Kellner, 1973). 그러나 그 이론이 지니는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지닌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가설을 개발시켜 이론의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드물었다(Doob, 1980). 최근에 Deutsch(1990), Fiske(1990) 및 Markus와 Kitayama(1991) 등은 사회문화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분류, 설명하는 이론을 독자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논의에 집단주의-개인주의 또는 그 유사개념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리학자들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 Triandis(1988, 1989, 1990)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의해서 명시적으로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연구가설들이 설정되고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비교문화심리학자들 및 사

회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산물로서 1990년 그 이론에 초점을 맞춘 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그 학술대회의 성과가 두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 준비 중임: Kim, Triandis, & Yoon, in press; Choi, Kagitcibasi, & Kim, in press). 이들 연구들은 대인교류의 양상, 조직의 특성, 의사소통의 특성, 사고의 형태, 분배양식, 갈등의 진행 및 해소, '나'의 규정양식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문화권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집단주의-개인주의 구분이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을 80년대에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 중 대인관계 현상을 다룬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정리를 통해서 추후 문화권의 비교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이분야의 연구들이 국내 심리학자들에게 시사하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 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 문화차이를 조명하는 틀로써 거론된 것은 오래전 부터이나 (예, Parsons & Shils, 1951) 크게 주목을 받고 경험적인 연구의 이론적 틀로써 자리잡게 된 것은 Hofstede (1980)의 연구 이후이며 심리학의 이론으로 정립된 데는 Triandis (1988, 1989) 등의 공이 크다. Hofstede는 전 세계 66개국에(53개 문화권) 지사를 지니고 있는 한 다국적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작업관련 가치조사를 실시하고서 각기 문화권의 응답 평균을 대상으로(N= 문화의 수이며 이 분석에서는 40) 생태적 요인분석(ecologic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네 가지 요인구조를 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권력과의 거리(Power distance)로서 주어진 사회의 성원이 사회 내의 권력이 불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여기는 정도로서 요인점수가 높으면 권력의 배분을 불공평하게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요인은 모호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로서 불확실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강도이다. 이 요인 점수가 높으면 확실한 상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모호한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여김을 뜻한다. 셋째 요인은 개인주의(Individualism)로서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돌보고 책임지는 경향이다. 이 점수가 높으면 사람들이 매우 개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남성가치(Masculinity)로서 자기주장, 돈, 물질 등의 남성적 가치를 선호하는 정도이다. 여성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양육, 삶의 질, 인간 등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우 남성가치의 점수가 낮다고 본다. Hofstede(1980)의 분석에서 권력과의 거리 요인과 개인주의 요인은 부적 상관이 매우 높게( $r=-.67$ ) 나타났지만 그는 두 가지 요인이 나름의 독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구분하고 있다.

Hofstede(1980)는 조사 대상 국가의 GNP, 인구,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를 구하여 위 네 가지 요인 점수와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권력과의 거리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또는 개인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후진국의 제반 특징(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인구증가율)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동양,

아프리카, 남부 유럽 문화권이 집단주의적 경향을, 북미·북유럽 문화권이 개인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 유사한 분석이 21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졌고(Bond, 1988), 또 다른 연구에서도(Triandis, Bontempo, Betancourt 등, 1986), 15개국을 대상으로 행하여져 Hofstede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자칫 문화의 복잡다기한 측면을 간과하고 단순화시킨다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즉 순수한 의미에서 집단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속성만을 지니고 있는 문화권은 드물며, 대부분의 문화권이 양면성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고 이 같은 양면성은 내집단의 종류·영역별로 구분되어 나타나거나(Hui, 1988), 양가감정적으로 공존해서(Sinha & Tripathi, 1990)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혹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 용어들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정의된 영역별로 구분해서 각 문화를 규정지을 때 비로서 문화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러한 구분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Triandis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집단주의의 주된 특징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고,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로 선행시키며,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 것이다. 한편 개인주의의 주요 특징은 자아를 집단과는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써 시각하고, 개인의 목표 추구가 집단에 누를 끼치더라도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며,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고 있다.”(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p. 335) 이같은 정의는 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Hui & Triandis, 1986).

집단주의-개인주의 구분의 기본적 출발점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內集團)을,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을 기본적 사회단위로 보는데 있다(Nakane, 1970; Hui & Triandis, 1986). 기본적 사회단위란 특정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분석대상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도 궁극적으로 기본적 단위

가 성원 개인이 될 수 있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민족집단과 같은 것이 기본적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즉 적절한 사회단위가 무엇이나 하는 것은 비교문화적 입장에서 각 사회성원의 대인교류, 대인지각, 자기지각, 귀인,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언어표현양식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 갖는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나'(self) 개념의 특성, 대인교류의 특성, 그리고 집단의 영향력을 문화권간에 비교하는 연구들을 살펴 보겠다.

## 2. 상이한 문화권에서 [나]의 의미

[나](自己, 自我: self)<sup>1)</sup>란 사회환경속에서 형성되고 개인의 삶을 통괄하여 주위와의 교류를 가능케하는 유기적 기능을 갖는다. 나의 표현양식, 나의 구성체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및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자, 언어학자, 심리학자들은 그의 표현양식과 구성 내용에 있어서 문화권의 차이를 연구하였다(Marsella, DeVos & Hsu, 1985; Shweder & LeVine, 1984 참조).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에서 [나]의 표현방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익히 지적되어 왔었지만 중국언어에서 일상의 회화 및 서간문에서 [나]란(독특한 주체의 의미) 주체는 생략되거나 "츠언<sup>2)</sup>"(臣), "모우"(某), "멍"(蒙), "위"(愚), "띠"(弟)로 대체되어 사용되며 오직 황제만이 "쿠아런"(寡人), "꾸지아"(孤家) 등과 같은 나의 독특성을 표현하는 말을 썼던 것이 지적된다(Kon, 1984). 한국인의 일상적 대화에서도 주격으로써의 [나]는 통상 생략되거나 보다 완곡한 표현인 [우리]로 대체되어 사용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나]의 문화권간 가치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동·서양 문화권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 1) 심리학에서는 Ego와 Self가 뚜렷한 구분없이 나, 自我, 自己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통상 자아로 번역되는 'ego'는 정신분석학, 성격심리학의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행위의 주체적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반면 'self'는 사회학,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 쓰이며 객관적 관찰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본 논문에서 나타나는 나, 자아, 자기는 모두 self의 번역이거나 self로 번역될 수 있다.
- 2) 중국어 발음과 그 뜻의 해독에 도움을 주신 전남대 중문학과 의 양희석교수에게 감사드린다.

(Johnson, 1985; Kon, 1984). 서양 문화권에서 [나]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독립적 향상체로써 기능을 한다. 자존, 자립, 자기주장, 자아실현 등이 생활의 목표 내지는 권장 덕목이며, 개인들 각자는 자율적인 주체임이 강조된다(Hsu, 1981, 4장; Ward, 1990). 개인의 활동의 일관성, 독자성을 추구하므로 일관성의 결여, 나의 향상성에 배치되는 모순된 행위, 복합적 자아(multiple selves)의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진다.

서구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테마의 하나가 행동-태도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연구이었다. 그 이유는 행동이 여일한 자아(태도의 응축 덩어리)의 발현이라고 보는 문화적 토양인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Gergen(1968)이 복잡자기 이론을, Duval과 Wicklund(1972)가 자의식(self-awareness)이론을, Goffman(1959)에 이어 Tedeschi 등(1981)이 인상관리이론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황 국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행동에 대한 성격이론의 낮은 설명력(Mischel, 1969)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지만 행동-태도의 불일치를 여전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일관된 자아, 성격, 태도에 의해 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Bem & Funder, 1978; Funder, 1983; Kenrick & Funder, 1988 등).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아의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추구한다(Kon, 1984). 我執으로 부터 탈각, 해탈, 物我一體의 사상들은 모두 [나]의 겹질을 깨고 주위와 화합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다(Ward, 1990).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을 내집단에 종속적인 존재로써 파악하므로 개인은 내집단과 결부된 여러 가지 의무(忠-국왕에의 의무, 孝-부모에의 의무, 義-친구에의 의무, 信-주위사람에의 의무)를 지니며 개인에 대한 평가는 평가 국면에 따라서 그 요구되는 규범과 행위의 합치여부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진다(DeVos, 1973). 전통적인 일본사회에서 일본인들의 자아상은 내면화된 역할기대와 혼용되어 있으며 '자아이상'은 그러한 이상적인 역할 행위로 표현될 뿐 아니라 나를 사회적 역할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DeVos, 1985).

Triandis(1989)는 [나]의 비교문화론적 논의에서 [나]를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화권별로 자기진술문에 나타나는 나의 성격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적 자기(private self)는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모습이며(예, “나는 내성적이다”),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는 특정의 내집단 속에 규정되어지는 자기이며(예, “내 동료들은 나를 정직하다고 본다”), 공적 자기(public self)는 일반 사회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나의 모습이다(예, “사람들은 내가 정직하다고 본다”). Triandis는 집단주의 문화권이나 두레성향<sup>3)</sup>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집단자기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나 홀로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사적 자기가 나의 주된 구성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20개의 “나는 ……” 진술문의 분석(Twenty Statement Test: 이하 TST; Kuhn & McPartland, 1954)에서 동양계 사람들이 코카사스계 미국인보다 사회범주(가족, 인종, 직업, 종교, 성 등)를 언급하는 비율이 높은 사실로 지지되고 있다(Trafimow, Triandis, & Goto, 1991; Triandis, McCusker, & Hui, 1990). 그는 또한 사회범주를 드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스 대학생에게서 15%, 홍콩 대학생에게서 20%, 중국 본토의 대학생에게서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Triandis 등, 1990). 아울러 어느 문화권에서도 가족이 중요한 사회범주으로써 언급되고 있음은 차이가 없으나, 미국인들이 드는 사회 범주가 보다 다양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인들은 스포츠클럽, 종교, 연령, 인종 등을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인들은 작업집단, 공산당, 취미클럽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의 비교에서 더욱 확대되어 관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Yi, 1991 참조).

집단의 언급이 단순히 빈도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연구들이 [나]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

는 요소의 성격들이 문화권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동서양 11개국의 6, 10, 14세 아동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응답을 분석한 연구에서 일본아동은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기술하는 문장을 훨씬 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ert & Klineberg, 1967). Luria(1976)는 중앙아시아의 농부들의 경우 자신의 기술은 성격특성으로써 보다는 사건의 나열, 구체적 행동 사례들로써 이루어짐을 보였다. 유사하게 일본, 홍콩, 미국 대학생의 자기 기술문의 비교연구에서 Bond와 Cheung(1983)은 일본인의 경우 통시적인 성격특성보다는 기호, 願望, 개인적 사건들의 기술이 많음을 관찰했다. Rotenberg와 Cranwell(1989)은 미국 아동과 미국내 인디언 아동의 자기개념 진술문 분석에서 인디언들이 가족내 역할, 전통적 관습, 사회의 도덕규범 등을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들 연구들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것이 Cousins(1989)의 연구이다.

Cousins는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의 자기개념 비교 분석에서 일본인들이 매우 추상적이거나(“나는 인간이다, 나는 학생이다” 등) 또는 매우 구체적인 언급(“나는 주말마다 마자를 한다”)을 많이 하는데 반해 미국인들은 중간 수준의 추상적 언급(“나는 호기심이 많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을 많이 함을 보였다. 이같은 자료는 일본인들의 자기의 정체감은 주위환경과의 연결 속에서 주로 파악되며 미국인의 그것은 상황과의 관련보다는 독립된 행위자로서의 심리적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인이 자신을 기술해 내는 능력이 없어서, 또는 자기지각의 인지적 결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자기란 개념이 지니는 연상성, 인지적 특성이 문화권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Cousins(1989)는 본래의 TST방법이 서양의 場-독립적 자기 (field-independent)를 조명하는데 적합하지 동양권에서처럼 상황과 관계에 처한 자기를 파악하는데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TST를 약간 변형시켰다. 즉 그는 ‘집에서의 나’, ‘친구와 있는 나’ 등으로 특정 상황과 결부된 자기의 모습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원래의 TST방식에서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심리적 속성으로 표현하는 글(“나는 낙관적이다, 신뢰할만 하다”)을 많이 보였고 일본인들은 보

3) Triandis(Triandis 등 1988)는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용어가 문화권의 비교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성향 비교에도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이 이론의 혼란을 가중시킴을 지적하였다. 그는 individualism-collectivism의 용어는 문화권의 비교에 국한시키고, 개인간의 성향비교에는 ideocentrism-allocentrism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키자고 하였다. 비록 이 용어의 구분이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용어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필자는 ideocentrism을 홀로성향, allocentrism을 두레성향으로 번역하였다. 홀로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을 보이며, 두레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 구체적이거나 아주 추상적인 자기 모습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변형된 TST의 응답에서는 미국인들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특성의 예외적인 면(“집에서는 가끔 게으르다”)을 기술하는데 일본인들은 특정상황에서의 자신의 심리적 속성들(“친구로써 신뢰할 수 있다”)을 표현하는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즉 일본 문화권에서 상황이 주어짐에 따라 자신의 속성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 속성은 상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미국 문화권에서는 자기의 속성은 원칙적으로 불변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을 볼 때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상황과 성격의 비교분석에서 일본의 경우 상황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Argyle, Shimoda, & Little, 1978).

최근에 자기 개념의 구성요소의 문화간 비교연구를 재정리한 Markus와 Kitayama(1991)는 동서양의 문화 특색을 자기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로 특징지었다(Hsu, 1981; Kagitcibasi, 1985 도 유사한 틀을 사용함). 이러한 분석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동서양을 집단주의-개인주의로 특징지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들은 자기개념의 분석 비교 차원을 넘어 문화간의 인지요소, 정서 및 사회적 동기의 차이에까지 그 분석 틀을 확대 적용시켰다. 이들에 따르면 상호의존적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인지요소는 「타인과 연결된 자기」이므로 친근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립적 자기의 중요한 인지요소는 「독특한 자기-남과 구별되는 자기」이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니고 그러한 정보는 남과 자기를 구별해주는 모습들이기 쉽다. 이러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검증한 연구(Kitayama, Markus, Tummala, Kurokawa, & Kata, 1990; Markus & Kitayama, 1991에서 재인용)에서 자기와 남과의 유사성 판단시 내가 남과 유사한 정도보다는(“내가 다른 사람과 유사한가?”) 남이 나와 유사한 정도가(“다른 사람이 나와 유사한가?”) 더 큰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이 서구문화에서 크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즉, 인도 문화권에서는 남이 자기와 비슷하기보다는 자기가 남과 유사하다는 지각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사성 지각의 비대칭성은 동양 문화권에서 자기의 독특성보다는 남과의 유사성 정보가 더욱 많음을 뜻하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기의 독특성이 자기도식 (self-schema)의 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Markus와 Kitayama(in press; Markus & Kitayama, 1991에서 재인용)는 미국 대학생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대학내에 30% 정도 있으리라 지각하는데 비해 일본의 대학생은 50% 정도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같은 자료는 자신의 독특성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학생은 일본의 대학생들보다 훨씬 자신의 능력을 독특하고 우월한 것으로(false uniqueness) 보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나」의 파악에는 주위사람들의 존재가 부각되는 정도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다 훨씬 강함을 알 수 있다.

### 3. 내외집단의 구분이 미치는 대인관계의 영향

문화권에 따라서 「우리」라는 집단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 하는 것이 다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집단은 “나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가족, 친구, 친지들”이며, 이들 좁은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외집단」의 관계이기 쉽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내집단은 “나와 유사한 사회계층, 인종, 사상, 태도,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며, 이 넓은 테두리에서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발생한다(Triandis, 1972).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성원 자격요건을 갖추면 내집단이 싫건 좋건간에 부과되고 개인의 행동을 규제한다(ascribed membership). 이같은 내집단은 성원의 특정 행동을 규제 또는 조장하는 규범을 갖고 있으며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집단간의 관계는 거의 영속적이며, 그 관계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집단의 성원은 집단을 위해 불특정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Hsu, 1981, 14장; Nakane, 1970, 2장). 개인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집단의 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많을 수가 없다(Triandis 등, 1988). 왜냐하면 많은 내집단의 경우 서로 모순된 갈등이 나타나기 쉬

운 까닭이다. 따라서 내집단은 가까운 친척, 이웃, 동창들의 집단들이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상부 상호 화합의 집단이며 공동운명체로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이익집단, 취미집단들처럼 가입 탈퇴가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Hsu, 1981, pp. 394-399). 집단의 규범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령, 부모가 반대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려들) 그 갈등의 해소를 돕는 비공식규범이 존재하며(孝는 信보다 중요함, 忠은 孝보다 중요함 등), 이같은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경우 파국적 결과가 초래되기 쉽다(Benedict, 1946, 10장; Hsu, 1981, 4장, 5장).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내집단의 성립이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필요와 구비자격에 따라 이루어진다(achieved membership). 즉 개인의 가입탈퇴가 자유의사에 따르며 집단이 갖는 구속력이 약하다.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이 있으므로,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개인은 집단을 무시하거나 또는 탈퇴를 한다.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내집단의 수는 다양하게 많을 수가 있다(Triandis & Vassilou, 1972). 그 수가 많다는 것은 내집단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심적 물적지원이 여러 내집단에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내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집단이탈이라는 선택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내집단이 다양한 까닭에 한 성원으로써 역할갈등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어느집단의 요구에 따르는가 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 갈등이 개인적 선호의 문제이기 쉽다. 내집단이나 다른성원에게 발생하는 일은 오직 본인들에게 중요한 관련이 있을 때만 관심을 끌며 일반적으로 내집단으로부터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내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Triandis 등(1988)은 일본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을 제시하고서 ①자기똥대로, ②상대방의 뜻대로, ③갈등회피 중 선택을 하게 하였다. 흥미롭게도 일본인의 경우 상대방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미국인의 경우보다 상대방이 누구이건 관계없이 현저하게 낮

았다. 반응의 양상을 분석해보면 일본인의 경우 내집단이 좁게 규정되며(부모, 친구), 미국인의 경우 내집단의 범위가 넓게 규정됨을 보이고 있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내집단이 보다 가까운 범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연구 자료는 또한 일본의 경우 내집단에도 '가까운' 내집단(부모 친구), '먼' 내집단(친척 동료 이웃)이 구분되나 미국의 경우 '가까운' 내집단의 범위가 넓으며 '먼' 내집단(이웃)과 외집단의 구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보였다.

두문화권에서 내집단의 의미가 갖는 차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내외집단 성원에 대해서 보이는 행위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다 큰 차이를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Triandis, 1972). 이같은 것은 학자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Hui 와 Triandis (1986)는 세계각지의 심리학자, 인류학자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집단주의자/개인주의자가 배우자, 어머니, 형제, 친척, 친척친구, 동료직원, 이웃, 아는사람, 같은 지역에 사는 낯선 사람, 외국으로 부터 온 낯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이는 행위가 어떻게 다르게 인지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분석 가능한 사람 46명의 결과를 보면 집단주의자나 개인주의자나 배우자 및 낯선 사람에 대해 보이는 행동에서는 차이가 적지만 그밖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단주의자는 개인주의자보다 훨씬 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가 높으며 주위 사람들 영향력 역시 집단주의자에게 크게 나타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보였다. 유사한 결과가 한국내에서 국민학교 아동을 홀로성향/두레성향에 따라 구분해서 연구했을 때 나타났다(Han, 1992).

내외집단의 성원을 차별하는 현상은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인을 대상으로 내집단(급우) 성원이나 낯선이와 교류를 하게 한 후 교류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 연구에서(Gudykunst, Yoon, & Nishida, 1987)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집단 성원과의 교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다도 훨씬 개인적이었고(personalized), 손발이 잘 맞았고(synchronized),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집단 간의 차이도 가장 큰 것이 한국, 다음이 일본, 가장 적은 것이 미국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집

단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각본을 이용한 의사 실험을 한 연구에서(Han & Choe, 1990), 한국인들은 상대방과 막연히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는 경우(내집단으로 구분됨)에도 그와 같은 연결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친숙한 의도가 나타나며 연결이 중복될수록 더욱 친밀한 의도를 보임이 나타났다.

Leung(1988)은 미국인과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각본실험에서 응답자들이 각본의 상대방과 갈등에 처한 상태를 제시하고서 상대방을 낯선 이 또는 친구로 조작하였다. 갈등이 송사로 비화될 가능성은 홍콩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으나, 미국인의 경우는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내집단 성원을 대상으로는 갈등의 회피가 갈등 해소의 한方便임을 보여준다. 한 가지 더 흥미있는 것은 상대방이 낯선 이일 경우, 응답자의 두레성향(각주 4 참조)이 높을수록 송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상대가 친구일 경우는 그런 성향과 송사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사한 결과가 한국의 대학생들이 보이는 갈등해소 행동의 실험연구(한규석, 1988)에서도 나타났다. 최근에 본인들이 경험한 갈등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이 보인 행동을 평가하게 했을 때 가족과의 갈등에서는 '관망'행위가 '상호토의'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계(내집단 성원)에서는 일시적인 관계(외집단 성원)에서 보다 갈등완화적인 행동이 더 잘 나타났다. 이는 대인 관계를 구축하는 규범이 개인주의 문화권(또는 홀로성향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상대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universalistic), 집단주의 문화권(또는 두레성향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큰차이가 있음을(particularistic) 의미한다(Han, 1992). 이같은 경향은 앞서 언급한 Triandis 등(198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일본인의 경우 상대방이 낯선 외국인일때 1%만이 상대의 뜻을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의 경우 15%로 나타나 1:15의 비율 차이를 보였으나 미국인의 경우 12%, 44%로 비율차이는 1:4 정도로 나타나 상대방이 내집단 성원인가 또는 외집단 성원인가 하는 구분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욱 큰 행동의 차이를 가져옴을 보여주었다.

내집단으로 부터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의 문화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정서적 거리감이란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좀더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Hofstede(1980, p. 221)는 “집단·조직, 또는 다른 집합적 구성체로부터 개인이 정서적으로 독립해있는 정도”로써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구분을 할 정도로 그 의미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내집단이 갖는 정서적인 의미의 문화 비교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 적절히 분석된바 있다. 최상진 등(Choi & Choi, 1990)은 캐나다와 한국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우리」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였다. 캐나다인에게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파악되고 「우리」속에서 「나」는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나, 한국인에게서 「우리」는 나를 융화시킨 개념으로 「전체」, 「혼일」의 의미를 가짐이 나타났다. 상대가 「우리」의 성원으로 되었을 때 한국인은 정서적 거리의 단축이라는 느낌의 변화를 중요한 변화로써 보이지만 캐나다인은 공통요인의 공유(commonality) 인식이라는 사실적 지각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우리」라는 의식은 「화목해야 한다」든가,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압력을 느끼게 함이 나타났다. 이같은 「우리」의 분석 결과 서구사회에서 정의된 집단주의의 개념이 한국사회에서의 「우리」주의 we-ness)에서 나타나는 「내가 집단속에 융화된」(I-disappeared we-ness)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수원(S. Lee, 1990) 또한 한국 문화권에서 「나」와 「너」는 「우리」라는 공간 속에서 더이상 분리된 존재로써 여겨지지않으며 「우리」라는 공간 속에서 이타적 사고가 당연히 자리잡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4. 집단의 영향: 동조행위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은 집단이 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크리라고 본다. 그 주된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중요시되는 덕목이 집단화목이기 때문에 (Hsu, 1981; Triandis, 1990) 성원들은 집단의 결정 및 다른 성원들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며 집단내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행위를 계속 규제하는 뜻이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성원에 대한 동조압력이 클 것이며, 집단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피하고 다수의 견해에 따르는 경향이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반

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이 성원과 병립하므로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 행위가 보다 허용될 수밖에 없다(Bond & Whang, 1986). 이같은 차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중시하는 가치가 협동, 권위에의 순종이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립, 성취가 중시됨에 반영되고 있다(Berry, 1967).

일본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이므로 동조성향이 높으리라는 단순한 논리를 Asch의 동조실험 방식으로 점검한 Frager(1970)는 미국인들의 1/3 정도가 동조행위를 보인데 반해서 일본인들의 1/4정도만이 동조행위를 보임을 관찰했다. 동조현상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 명확하고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규범이 불명확하고 처벌도 안따른다면 동조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적용시켜 Frager의 결과는 실험실상황에서의 규범의 불명확성에 그 연유를 돌릴 수도 있다 (Triandis 등, 1988). 그러나 Matsuda(1985)는 일본의 경우 준거집단의 종류에 따라 동조압력이 크게 차이남을 주목하여 친구집단, 실험실에서 친숙해진 집단, Asch의 표준 집단의 세 집단으로 준거집단을 구분 조작하여 Asch 유형의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친구집단에서의 동조는 미국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Asch 표준집단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다른 연구는 중국인이 친구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미국인보다 높음을 보이고 있다(Chu, 1979; Meade & Barnard, 1973, 1975: 세 연구 모두 Bond & Whang, 1986에서 재인용). 특히 전술한 Matsuda의 연구는 문화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행해지는 실험 연구들이 왕왕 해석하기 어려운 모순된 (따라서 예외적인 자료로 그 가치가 경시되어지는) 자료를 보이는 좋은 예이며, 실험연구시 단순한 복제연구(replication)가 갖는 취약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동조압력이 크다는 것은 즉 집단성원의 행동이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짐을 뜻한다. Triandis 등(1990)의 연구는 대부분의 집단주의 문화권 대학생들이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욱 동질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이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외집단이 내집단보다 더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함을 보였다.

또한 내집단과 자신의 거리감을 크게 느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동질성이 덜한 것으로 여김을 보여준다( $r = -.57, p < .0001$ ). Yamaguchi(1990)는 일본인들에게서 두레성향이 높은 사람이 집단내의 의견의 합치성을 실제보다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 같은 자료는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내집단의 이질적 파악-외집단 동질적 파악」 현상(Quattrone, 1986)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서구에서 나타난 위 현상은 흔히 내집단과의 교류가 외집단과의 교류보다 많으므로 내집단 성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내집단 성원들의 독특성이 두드러지게 인식되어지는 탓으로 설명되었다(Quattrone, 1986: 리뷰를 위해서는 Judd & Park, 1988 참조할 것). 이 현상의 동서문화 차이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인식의 초점이며 개인차가 두드러지게 지각되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인식의 초점이 되어 개인차가 부각되지 않기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Ross & Sicoly, 1979 참조).

동조압력이 문화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동조행위가 갖는 심리적 기제(Kelman, 1958)가 문화권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심적기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고 있다(Bond & Whang, 1986). 첫째는 피리가설로써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남 앞에서 보이는(public) 의견, 태도는 내면의 것(private)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피리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멕시코에서 피임행위에 대한 여성의 개인차 연구에서(Davidson, Jaccard, Triandis, Morale, & Diaz-Guerrero, 1976) 두레의식이 높은 사람들 일수록 피임에 대한 자기의 견해보다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피임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집단주의자들이 개인주의자들 보다 더 사회적 평가에 신경을 쓰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얻고 싶어한다는 자료들도(Barnlund, 1975; Hui, 1988; Leung & Bond, 1984) 피리가설에 타당성을 제공한다.

다른 가설은 내재화가설로써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중시의 사회적 규범이 성원들에게 내재화되어 있으므로 남 앞에서 보이는 행위가 바로 개인에



게 내재화된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중요한 연구에서 Bontempo, Lobel과 Triandis(1989)는 브라질(집단주의 문화)과 미국의 피험자들을 두 가지 실험조건에 분할 할당하여 질문에 응답케 하였다. 질문은 “응답자에게 누(累)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내집단의 규범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따위의 질문이고 응답자의 반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알려지는 상황(public)에서, 나머지 반은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상황(private)에서 응답하였다. 브라질인들의 응답은 실험조건간 차이가 없이 내집단의 규범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인의 경우 남에게 알려지는 경우 규범에 따르지만 알려지지 않는 경우 규범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브라질인들의 경우 동조는 내재화된 가치(internalization)의 반영이지만 미국인의 경우는 응중(compliance)임을 시사한다. Harding(1980: Bond & Whang, 1986에서 재인용)도 이상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괴리가 중국인에게서는 훨씬 적음을 보고 하므로써 내재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재화가설과 괴리가설의 대립은 인간의 행위를 분석시 그 행위와 직결된 것만을 분석도식에 포함시킬 때 나타나는 모순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각 가설이 상반된 증거에 접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에게 득실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 행위에 직접 관련된 태도만을 본다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괴리가설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와 직접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의 영향력(내집단의 화목)을 분석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 즉 두가지 유관된 가치가 상반된 행위를 촉발시킬 때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가치의 갈등이 존재할 것이다. 다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이 두 가치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 집단화목의 가치가 눈앞의 자기이득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에 규범이 미치는 영향력이 두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되는 가치가 화목, 동조, 복종, 권위, 신의 등이라 볼때 이러한 것은 자녀양육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아이들이 어른의

말, 주위의 뜻에 동조하는 행위를 보이면 그들은 보상을 받게되고 자연히 그러한 규범, 주위의 뜻은 아동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되기 쉽다.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와 의무 규범이라는 가치의 상대적 영향력이 갖는 문화차이를 보기위해 Miller, Bersoff 와 Harwood(1990)는 인도와 미국의 일반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시한 각본에서 행위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양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설명 차이를 비교하였다. 인도인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도움행위는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의 일부로써 여기는 경향이냐, 미국인들은 심각한 위험에 빠진 경우에만 사회적, 도덕적 책무로써 여길 뿐, 심각하지 않은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맡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즉, 사회적·도덕적 책무(social responsibility)가 인도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침을 의미한다. 문화권 내의 비교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Hui(1988)는 개인의 행동과 의무감은 두례의식이 높은 사람에게서 깊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나(상대와 친소 여부를 불문하고) 홀로의식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상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미국내의 스페인계들은 주위사람의 건강, 아동에게 주는 피해, 남들이 겪는 불편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해 홀로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금단증상 등에 관심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Marin 등, 1987: Triandis, 1989에서 재인용). 이같은 결과들은 개인주의자들은 관심이 자기에게 있으며 판단 기준이 자기이지만 집단주의자들은 내집단에의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로써 여겨질 수 있다.

## 5. 대인 관계에서의 자기노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내집단이 있으며 적절한 자기제시에 따라 여러 내집단과 갈등을 무마시키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변신을 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성립케 한다. 이는 자기조정능력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더욱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과 일본어판 자기조정척도(self-monitoring scale: Snyder, 1979)를 만

들어 미국과 비교한 연구는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Gudykunst, Yang, & Nishida, 1987). 한편 교류불안(social anxiety)은 미국인보다 한국, 일본인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술의 차이를 직접 비교한 Barnlund와 Araki(1985)는 개인주의 문화권(미국)에서 타인에게 칭찬을 더 많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해줌을 보였다. 또한 미국인들은 일본인 보다 낯선 타인과 쉽게 어울리고, 협동을 잘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Gabrenya & Barba, 1987).

Triandis 등(1988)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친구를 만드는 사교술이 미숙하지만 그 친구관계란 많은 부담을 서로 지게되는 장기적인 우정이며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친구를 만드는 사교술이 뛰어나지만 그 친구들은 의무 부담을 별로 수반하지 않는 친밀성이 부족한 단기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Wheeler 등(Wheeler, Reis, & Bond, 1989)은 미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약 보름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대인 교류에 대해서 그 대상, 교류시간, 교류내용, 교류횟수 등에 대한 기록을 하게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홍콩의 학생들은 미국의 학생보다 일일 교류횟수 및 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며 개인적인 일대일 교류보다 여러이서 모이는 교류를 하고 있으며 대교류의 지속시간이 긴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류내용이 과제중심적이고(오락, 즐겁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자기노출정도가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Triandis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들인데 내집단/외집단의 구분이 미국인보다는 중국인의 교류에 큰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이기도 하다.

Gudykunst 등(in press)은 홍콩과 대만학생들의 경우 역시 외집단성원에게 보다는 내집단성원에게 더욱 자신을 노출시키지만 미국과 호주인들은 내외집단의 구분이 자기노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연구에서 조사된 일본인의 경우 내집단성원들에게 자신의 노출이 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lund, 1975 참조). 이 같은 모순에 대해서 Barnlund는 일본의 경우 문화의 동질성이 워낙 강하므로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도 의사전달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물론 대인노출이라는 현상이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외의 요인들

에 의해서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고려되지 못한 다른 변인에 의한 영향 탓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Triandis(1989)가 제시한 문화분석의 또 다른 틀인 문화의 치밀성(tight-loose)차원을 적용시킬 때 자기노출에 있어서 문화차에 관한 모순된 자료는 정리가 될 수 있다. 치밀한 문화는 동질성이 강하고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사회규범이 존재하여 규범에서 어긋나는 것을 강하게 제재하는 문화이어서 자기노출에 의해 사적 자아가 지니고 있을 수 있는 탈규범성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특히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적 자기와 공적 자기의 괴리가 클 수 있음; Barnlund, 1975). 따라서 치밀한 문화권에서는 비록 친밀한 관계에서도 자기노출을 꺼릴 수 있다. Barnlund(1975)는 일본인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동성친구, 이성친구, 부모, 낯선이 등에 대해서 보이는 자기노출을 분석하였는데 노출 정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양상은 두 문화권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동일 상대방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미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노출을 많이 함을 보였다.

Barnlund(1975)의 연구절차의 일부를 그대로 한국의 대학생에게 적용한 연구(오세철, 1982, pp. 159-202)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자기노출이 일본인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인보다 덜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보다 선택적으로, 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자발적 형태보다는 규제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노출을 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탓에 남에게 덜 알려지거나, 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특징을 비교했을 때 미국인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으로써 자각하고 있는 5가지 특징은 self-assertive, frank, informal, spontaneous, talkative 인데 반해 일본인은 reserved, formal, silent, cautious, evasive(Barnlund, 1975)이고, 한국인은 dependent, warm, formal, close, serious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경향이 적음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같은 연구결과는 Wheeler 등(1988)의 결과와는 모순된 것이다. 이같은 차이가 두연구에서 자기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홍콩인과 일본인의 문화의 또다른 특성(이를테면 tight-loose:

Triandis, 1989) 때문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6. 집단주의-개인주의 연구의 문제점과 공헌

지금까지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요체개념으로써 「나」와 「집단」을 선정하여 두 문화권에서 두가지의 의미, 기능, 구성요소 등을 살펴보았으며 두가지의 상호작용(즉, 집단속에 처한 나)이 보이는 특성을 논하였다. 이같은 논의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 제시하는 가설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검증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경험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이 담고 있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이론의 무분별한 적용에 있다. Kagitcibasi(1990)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데 적용되는 것에 경각심을 표하며 보다 철저한 실험정신에 입각한 개념의 사용을 역설하고 있다. 문화간 비교를 함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를 조명해주는 이론적 틀을 규정하지 않고 차이행위를 문화차로 돌리는 것은 무이론적이며 극히 그 성과를 의심스럽다(Bond & Whang, 1986).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는 문화차이를 보여주는 이론적 변수를 조작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많은 연구들이 두개의 상이한 문화권을 선정하여 독립변수로 삼고 이들 성원들이 보이는 「공동된」 행위를 비교하여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으로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는 집단주의-개인주의 뿐만 아니라 복잡성(Triandis, 1989), 식생활, 경제수준, 가족제도, 동질성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차이가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개념을 적용시켜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경우 마치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난 행위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서 실제 독립변인으로 구체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닐 경우 이 같은 설명은 항상 오염변인(confounding)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이같은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두 문화를 선정하고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상의 차이를 가정하는 대신에 두 문화권에서 선정된 연구대상이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Stipek, Weiner & Li(1989)는 중국 대학생의 성공, 실패에 대한 귀인 성향이 미국 대학생과 다르지 않음을 보였다. 즉, 성공, 실패에 대해 능력보다는 노력 탓을 하리라(중국인에게서)는 문화차이 가설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비교연구에서 중국의 어머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화 차이가 나타났다(Hess, Chin-Mei, & McDevitt, 1987). 이 같은 차이는 동일 문화권에서도 세대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대학생들이라는 집단은 점차 개인주의의 생활모습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한성열 안창일, 1990; Kashima & Triandis, 1986).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권내에서 홀로-두레성향의 개인차의 분석이 문화차이가 시사해주는 행동차이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精緻化를 위해서 꼭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Han, 1992; Hui, 1986; Kagitcibasi, 1990; Triandis, et. al., 1988).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정치화를 위해서는 그 이론의 적용한계를 밝히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는 소위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아프리카 제국, 아시아 제국, 남아메리카 제국)들간의 차이조명이다. Nakane(1970)는 일본인의 대인관계 특성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갖는 독특성을 인도나 중국 문화권의 나라들과 구별짓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의 가족(ie: 家)은 혈연 구성체라기 보다는 동거집단 구성체의 의미가 강함을 예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분가해 나간 형제들과 부모의 관계, 형제들 서로간의 관계는 오히려 서구사회의 가족보다 더 멀다는 것이다. Hsu(1981, 4장)는 미국과 영국의 개인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이같이 같은 문화권의 사회라고 해도 각 사회마다 차이가 있으며, 중요시하는 면모는 또한 다를 수 있다.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집단화목을 중시하므로 스스로를 제시함에 있어서 겸손함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남과 갈등의 소지를 되도록 없애려고 한다. 대결, 반대의 직접적인 표명은 매우 금기시된다(한규석, 1988; Leung, 1987). 반면에 지중해 연안의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명예/품위가 중요하며 스스로와 남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문화의 특성을 구분하는 별개의 차원 설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Triandis(1989)는 그러한 차원으로써 문화의 복잡성(complexity)과 치밀성(looseness-tightness)을 들고 있다. 문화가 갖고 있는 의미의 복잡성을 감안할때 이같은 핵심적 차원의 구명연구가 요망되며, 이러한 연구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타당성과 적용한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마지막 문제점은 그이론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형성되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두가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문화권이 다른 사회의 성원들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개인주의 문화권에 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Benedict(1946, 10장)은 일본인들의 사회행동은 수치심(shame)에 의해서, 서구인들의 그것은 죄의식(guilt)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주장한바 있다(Triandis 또한 이를 가설로 제시함, 1990).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DeVos(1985)는 일본인의 성격분석에서 일본인들은 주위사람, 사회가 요구하는 자아이상을 내재화시켜 갖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이것에 비추어서 어긋나거나 미흡하게 느껴졌을때 주위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죄의식을 느낌을 관찰하고 있다(Harding, 1980 참조). 즉 주위의 상황적 평가의 유무에 따라서 부끄러움(남에게 대한)을 느끼고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재화한 자아이상에 비춘 자기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부끄러움(스스로에게)을 느낀다는 것이다. Benedict와 DeVos의 분석의 차이는 규범을 개인에게 사회가 부과한 모습으로써 보는가(Benedict의 관점) 아니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개인이 내재화시킨것으로 보는가 하는 관점(DeVos)의 차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간의 비교와 더불어 문화권내에서 이같은 논의가 제시하는 것은 특정문화권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용어의 의미가 갖는 독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한규석, 1991).

둘째로, 사회심리학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생성, 학문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초점이 행위자 개인에 맞추어 졌다는 것을 문화비교 심리학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Pepitone, 1981; Sampson, 1977). 개인이 받는 초점의 비중은 끊임없이 사회심리학에

서 논란거리가 되어왔지만(Doise, 1986; Eskola, 1988),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개인행위가 연구과제의 중심이 되는 것을 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의 행위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생각 및 행위의 개인적 발현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험 및 현장조사연구는 바람직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이 사회현상의 이해에 공헌한 점은 크게 세가지로 논할 수 있다. 첫째로, 그 이론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무관하게 등장한 많은 中이론들(mid-range theories; 사회교환 이론, 분배정의 이론, 인지 일관성 이론, 조직풍토 이론, 태도 이론, 자아 이론 등)을 연결,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심리학의 제반이론들이 분화를 거듭하면서 그 적용영역이 좁아져 왔지만 이론간의 연결 통합을 꾀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이론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경우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이론들도 무관한듯이 공존하여 왔다(예, 교환이론과 분배정의 이론, 자기도식이론과 귀인편파이론 등).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은 본 논문에서 다룬 사회적 행위 및 인지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을 하나의 틀속에서 다룰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 정신질환과 스트레스(Triandis et. al., 1988), 심리치료의 접근철학(C. Lee, 1990; Ward, 1990), 조직행동 등의 문화차이를 조명해 주는데 까지 적용되고 있어 가위 드물게 보는 대이론(a grand theory)이라고 볼 수 있다. 이면에서 그 이론의 발전 및 한계노정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둘째로,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은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시야를 넓혀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등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인 변수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리학자들은 문화권내에서 행하는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화 특수적 요인을 고려해야

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정문화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날 현상을 보편적(universal) 현상으로 여기거나, 복제(replication)에 실패시 알수 없는 표본 특성이나, 절차상의 미묘한 차이 탓으로 여겨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이분야의 연구가 기여한 것은 서구중심의 심리학의 제원리가 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을 명백히 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필자는 심리학의 주요 이론이 갖는 문화 특수성을 거론하였다(보다 상세한 논의는 한규석, 1991을 참조바람). 여기서는 그러한 이론뿐 아니라, 연구대상 및 핵심개념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검토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즉 현대 심리학이 서구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중시되는 현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중요 개념들이 갖는 의미도 그러한 문화특수성을 띄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 현상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 때 과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의미의 차이를 갖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성취동기, 자존심, 자아실현, 자기정체감 등은 성취지향적인 문화권과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인식되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이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서구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국사회의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상의 편린만을 파악하거나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성취가 갖는 의미가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 대한 문화권의 차이에 대한 조명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그러나 DeVos, 1973; Maehr & Kleibler, 1981; Yu & Yang, 1990은 이 점을 짚고 있음) 서구식 의미의 성취행동에 대한 문화권 간의 차이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Segall, 1979, pp. 149-155; Segall 등, 1990, pp. 225-229). 이것은 물론 서구적 성취동기의 연구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취가 갖는 문화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연구들은 한국인의 이해를 위한 심리학 정립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심리학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참고문헌〉

- 오세철 (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박영사.
- 한규석 (1988). 갈등상황에서의 행동유형-일관성의 문제. 서예 송대현교수 화갑기념논문집, pp. 137-148.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성열,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Argyle, M., Shimoda, K., & Little, B. (1978). Variance due to persons and situations in England and Japa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335-337.
- Barnlund, D. C.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kyo: Simul Press.
- Barnlund, D. C., & Araki, S. (1985). Intercultural encounters: The management of compliments by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9-26.
- Bern D. & Funder, D. (1978). Predicting more of the people more of the time; Assessing the personality of situations. *Psychological Review, 85*, 485-501.
- Benedict, R. (1946). *국화와 칼: 일본문화의 틀.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김윤식, 오인석(공동번역, 1991), 을유문화사.
- Berger D., Berger B., & Kellner H., (1973). *The homeless mind*. NY: Random House.
- Berry J. W. (1967).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n subsistence-level socie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415-418.
- Bond, M. (1988). Finding universal dimensions of individual variation in multicultural studies of values: The Rokeach and Chinese value surve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09-1015.

- Bond, M. H., & Cheung, T. (1983). College students' spontaneous self concept: The effect of culture among respondents in Hong Ko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153-171.
- Bond, M. H., & Whang,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Bond (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ontempo, R., Lobel, S., & Triandis, H. (1989). *Compliance and value internalization among Brazilian and U. S. students*. Manuscript submitted.
- Choi, S. C., & Kagitcibasi, C. & Kim, U. (in pres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ocial and applied issues. SAGE.
- Choi, S. & Choi, S. (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Chu, L. (1979). The sensitivity of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to social influenc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9*, 175-186.
- Cousins, S. D. (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124-131.
- Davidson, A., Jaccard, J., Triandis, H., Morales, M., & Diaz-Guerrero, R. (1976). Cross-cultural model testing: Toward a solution of the etic-emic dilemm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1*, 1-13.
- DeVos, G. (1973). *Socialization for achievement: Essays on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Japa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Vos, G. (1985). Dimensions of the self in Japanese culture. In A. Marsella, G.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pp. 149-184). London: Tavistock.
- Deutsch, M. (1990).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J. Himmelweit and G. Gaskell (Eds.), *Societal psychology*. London: Sage.
- Doise, W. (1986). *Levels of explanation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published in 1982)
- Doob, L. W. (1980). The inconclusive struggle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59-73.
- Duval, S., & Wicklund, R.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Eskola, A. (1988). How many social psychologies are there? In A. Eskola (Ed.), *Blind alleys in social psychology: A search for ways out*. (pp. 11-68) Amsterdam: Elsevier Publishing Co.
- Fiske, A., (1990). *Making up society: The four elementary relational structures*. New York: Free Press.
- Fragar, R. (1970).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03-210.
- Funder, D. (1983). Three issues in predicting more of the people: A reply to Mischel and Peake. *Psychological Review*, *90*, 283-289.
- Garbrenya, W. K. & Barba, L. (1987, March).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interaction during group problem solv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lanta.
- Gergen, K. (1968). Personal consistency and the presentation of self. In C. Gordon & K. Gergen (Eds.), *The self in social interaction: Classic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vol. 1)*, pp. 29-308). New York: Wiley.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Gudykunst, W. B., Yang, S-N., & Nishida, T. (1987). Cultural differences in self-consciousness and self-monitoring. *Communication Research*, 14, 7-34.
- Gudykunst, W. B., Yoon, Y., Nishida, T., (1987).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Communication Monographs*, 54, 295-306.
- Gudykunst, W., Ge., G., Schmidt, K., Nishida, T., Bond, M., Leung, K., Wang, G., & Barracough, R. (in press).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monitoring, and predicted outcome value on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Han, G. (1992). *Children's choice in conflict: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To be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Liege, Belgium, 14-18, July.
- Han, G., & Choe, S. (1990). Influences of family, region, and school network-ties on interpersonal intentions and the attitude-behavior discrepanc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Harding, C. (1980). East meets West: A conflict of Values. *Hong Kong Psychological Society Bulletin*, 5, 35-43.
- Hess, R., Chin-Mei, C., & McDevitt, T. (1987). Cultural variations in family beliefs about children's performance in mathematics: Comparison am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American, and Caucasi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179-18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Sage Press.
- Hsu, F. L. K. (1981). *Americans and Chinese: Passage to differenc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su, F. L. K. (1985). The self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A. J. Marsella, G.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New York: Tavistock.
-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on Personality*, 22, 17-36.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Johnson, F. (1985). The Western concept of self. In A. J. Marsella, G.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New York: Tavistock.
- Judd, C. M., & Park, B. (1988). Out-group homogeneity: Judgments of variability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78-788.
- Kagitcibasi, C. (1985). A model of family change through development: The Turkish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I. Lagunes & Y.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Lisse: Swets & Zeitlinger.
- Kagitcibasi, C. (1990). A Critical Appraisal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wards a New Form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Kashima, Y., & Triandis, H. C. (1986). The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s as a coping strategy: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83-97.
- Kelman, (1958).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 51-60.
- Kenrick, D., & Funder, D. (1988). Profiting from

- controversy: Lessons from the person-situation debate. *American Psychologist*, 43, 23-34.
- Kim, U. Triandis, H. C. & Yoon, G. (in pres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SAGE.
- Kitayama, S., Markus, H., Tummala, P., Kurokawa, M., & Kata, K. (1990). *Culture and self-cog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 Kon, I. S. (1984). The self as a historical-cultural and ethnopsychological phenomenon. In L. Strickland (Ed.), *Directions in Soviet social psychology*. New York: Springer-Verlag.
- Kuhn, M. H., & McPartland, R. (195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elf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68-76.
- Lambert, W. & Klineberg, O. (1967). *Children's views of foreign people: A cross national stud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Lee, C. (1990). A Comparison of Oriental and Western Approaches to Counseling and Guidanc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Lee, S. (1990). The "Chong" Space: A Zone of Non-Exchange in Korean Human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Leung, K. (1987). Some determinants of reactions to procedural models for conflict resolu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98-908.
- Leung, K. (1988). Some determinants of conflict avoidan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125-136.
- Leung, K., & Bond, M. H. (1984).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93-804.
- Luria, A. R. (1976). *Cognitive developments: Its cultural and social foundations*. M. Lopez, Morillas & L. Solotaroff (Trans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Original published 1974)
- Maehr, M. & Kleiber, D. (1981). The graying of achievement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36, 787-793.
- Marin, G. V., Marin, G., Otero-Sabogal, R., Sabogal, F., & Perez-Stable, E. (1987). Cultur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smoking: Developing messages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ech. Rep.). (Available from Box 0320, 400 Parnassus Ave., San Francisco, CA 94117)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kus, H., & Kitayama, S. (in press).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 concept. In G. R. Goethals & J. Strauss (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self*. New York: Springer-Verlag.
- Marsella, A. J., DeVos, G., & Hsu, F. L. K. (1985). *Culture and self*. New York: Tavistock.
- Matsuda, N. (1985). Strong, quasi, and weak conformity among Japanese in the modified Asch proced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83-97.
- Meade, R. D., & Barnard, W. (1973).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among Americans and Chine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9, 15-24.
- Meade, R. D., & Barnard, W. (1975). Group pressure on American and Chinese fema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6, 137-138.
- Miller, J. G., Bersoff, D. M., & Harwood, R. L.



- (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in the United States: Moral imperatives or personal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3–47.
- Mischel, W., (1969). Continuity and change in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24, 1012–1018.
- Nakane, C. (1970). Japanese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sons, T., & Shils, E. A.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epitone, A. (1981). Lessons from the history of soci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36, 972–985.
- Quattrone, G. A. (1986). On the perception of a group's variability.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25–48). Chicago: Nelson-Hall.
- Ross, M., & Sicoly, F. (1979). Egocentric biases in availability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22–336.
- Rotenberg, K. J., & Cranwell, F. R. (1989). Self-concept in American Indian and White children: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39–53.
- Sampson, E. E. (1977). Psychology and the American ide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762–782.
- Segall, M. (1979). *Cross-cultural psychology: Human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Monterey: Brooks / Cole.
- Segall, M., Dasen, P., Berry, J., & Poortinga, Y. (1990). *Human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An introduction to cross-cultural psychology*. New York: Pergamon.
- Shweder, R., & LeVine, R. (1984).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ha, D. & Tripathi, R. C. (1990). Individualism in a collective culture: A Case of coexistence of dichotom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Snyder, M. (1979). Self-monitoring process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2, New York: Academic Press.
- Stipek, D., Weiner, B., & Li, K. (1989). Testing some attribution-emotion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9–116.
- Tedeschi, J. T. (1981).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 (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self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 Triandis, H. C. (1972). *The 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New York: Wiley.
- Triandis, H. C. (1978). Some universals of social behavior.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1–16.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 cultural psychology. In G. K. Verma & C. Bargley (Eds.),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s*. London: MacMillan, pp. 60–95.
- Triandis, H. C. (1989).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269–289.
- Triandis, H. C. (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Triandis, H. C., Bontempo, R., Betancourt, H., Bond, H., Leung, K., Brenes, A., Georgas, J., Hui, C., Marin, G., Setiadi, B., Sinha, J.,

- Verma, J., Spangenberg, J., Touzard, H., & de Montmollin, G. (1986). The measurement of etic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cross cultur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Special issue on cross-cultural psychology), 33, 257-267.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M.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riandis, H., & Vassiliou, V. (1972).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In H. Triandis (Ed.), *The 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pp. 299-338). New York: Wiley.
- Ward, C. (1990).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Orientations in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the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and Mental Healt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Wheeler, L., Reis, H. T., & Bond, M. H. (1989). Collectivism-individualism in everyday social life: The middle kingdom and the melting p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9-86.
- Yamaguchi, S. (1990). Empirical evidence on collectivism among the Japanes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Yi, J-H. (1991). *A cross-cultural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from individualist-collectivist perspectiv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Missouri: USA (일부가 1991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에서 발표됨. 연차대회 초록 pp. 383-390).
- Yu, A-B., & Yang, K-S. (1990).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원고 초 본 접수 : 1991. 10. 7

원고 수정본 접수 : 1991. 5. 15

## A Review of the Cross-Cultural Research on the Theor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Gyu-Seo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To examine the utilities of the theory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posed by Triandis (1990), recent cross-cultural research on the theory was reviewed. The empirical researches were examined in four areas;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nception of 'self', discrimination between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conforming behaviors, and interaction disclosure. Although the methods of many researches are not appropriate for testing the theory, many works provide support to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theory. Discussions were centered on the aspects of the theory-testing and the possible refinements. The theory's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social acts is largely twofold: it has the potential of integrating many mid-range theories in various fields of psychology and it has clearly shown the importance of cultural milieu on psychological theorizing.